



한국지역난방공사
KOREA DISTRICT HEATING CORP.

청렴한 세상에 대한 이해

2014. 10



씨랜드 참사 사건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서울 소망유치원생 42명

안양 예그린유치원생 65명

서울 공릉미술학원생 132명

부천 열린유치원생 99명

화성 마도초등학교 학생 42명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알 수 없는 이유로

강동구 소망유치원생

19명이 자고 있던 301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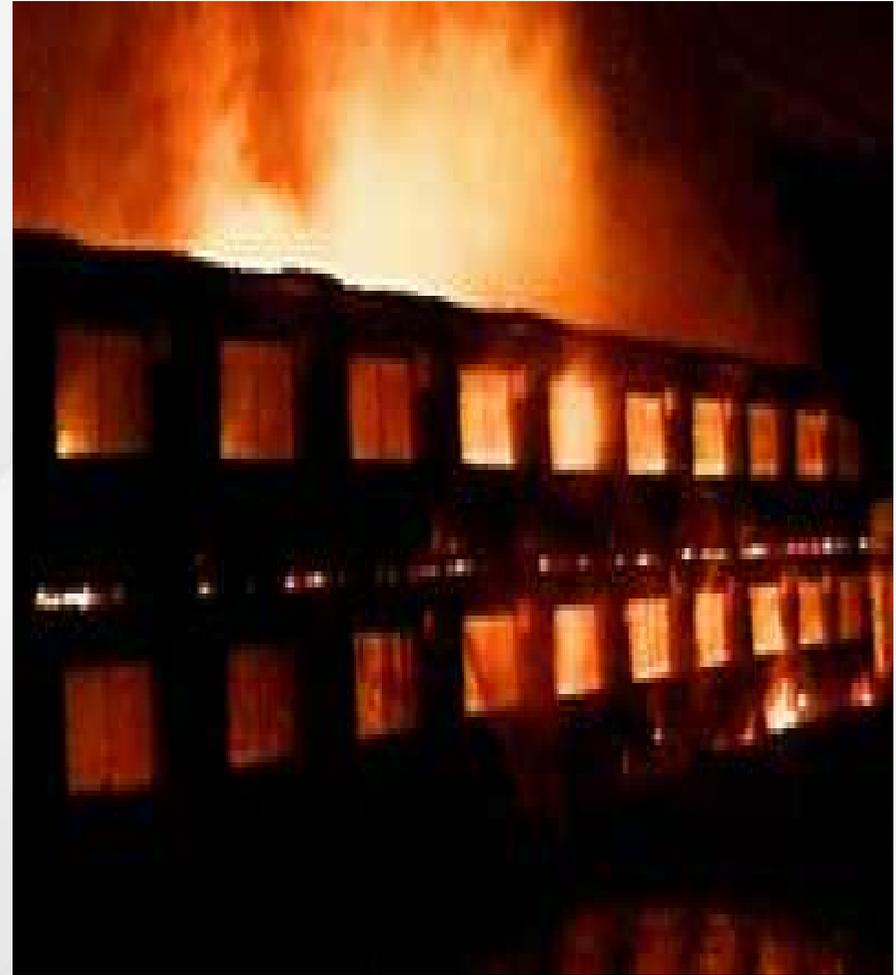
화재가 발생하고

19명의 어린이와 4명의 교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불은 순식간에 타기 쉬운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컨테이너 박스 건물 전체로
확산됩니다.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수련원 건물은 콘크리트

1층 건물 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2~3층 객실을 만든 임시건물로

안전사고위험 때문에

'어린이 캠프'가 금지된 건물이었습니다.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양어장-수영장-수련원으로
전환하여 운영상태와
인허가 기준이 맞지 않음에도
화성군은 사용승인과
운영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비치된 15개 소화기 가운데
9개는 속이 텅 빈
'먹통 소화기'였음에도
소방서는 소방 필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두세 달 전에 소방점검을 했지만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와
비상벨은 울리지 않았고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 화성군 부녀복지계 이○○계장 -

“제가 끝까지 버텼더라면 23명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는데.....”
라며 오열

불법 허가를 압박했던 과장, 수련원장,
설계사무소 대표 등은 모두 사법처리

이 계장도 허가를 내준 책임이 있지만
끝까지 버틴 정상을 참작하여
무죄 처분을.....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별이 나기 전의 기록 - 이○○ 계장의 비망록

▲ 97.12.19

= 씨랜드 인허가건으로 하여
대리인인 박재천씨가 협상국은
3명과 함께 사무실로 찾아 왔다.

▲ 98.1.30

= 과장이 불러서 가보니 배 상자안에 박
재천이 전달하라고 했으며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싫다고 했더니 받아서 직접 돌려
주라고 했다. 박재천의 농협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곧 바로 송금하였다.

내가 굶어 죽어도 그런 돈을 받고
싶지 않다.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이○○ 계장의 비망록

▲98.8.20

=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 전 사전영업

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결재를

요청더니 강과장이 사인을 해주지

않았다……

씨랜드 건에 대해 과장이

이상하 게도 과민반응을 보인다……

차라리 과장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당신이 군수야 뭐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강○○ 사회복지과장)

“가족을 몰살시켜버리겠다”

(용역깡패의 협박에 3자녀를 한때 피신)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98. 2월 상사의 압력과
용역깡패의 협박에 못 이겨 이장덕 계장은
씨랜드 운영허가를 내주었다.

그리고.....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천만다행으로

검은 재에 그을리면서도

살아남은 아이도 있지만

19명의 어린이와 4명의 교사가

아까운 목숨을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주인을 기다리는

소망유치원의 19켤레의 신발들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을 잃
고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대통령 내외도 추모했지만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의 마음은
모두의 영원한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 화재에서 아들 도현(강동구 소망유치원)을 잃은 전국가대표 하키선수

김순덕씨는 우리나라에 절망하여 메달과 훈장을 반납하고

1999년 12월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녀는 떠나면서 **‘누구나 그 속에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유족들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